

大陸의 4~5千倍나 되는

豊富な 海底鑛物資源

提供 編輯 室

### 日本の 資源調査團 報告

社団法人 資源協會(內田俊一會長)가 지난 7月, 美國에 派遣한 資源調査團(工業技術院資源技術試驗所 廣田豊彦團長以下 6名)은 16日 東京 大手町の 經團連會館에서의 調査結果報告會에서, 世界中的의 海底鑛物資源은 單강 3千6百億噸, 코발트 50億噸으로 各各 全大陸推定埋藏量의 4千~5千倍에 達할 뿐만 아니라 各種 貴金屬도 莫大한 量이 있으며, 코발트, 닉켈, 銅 등은 가까운 將來에 採算上으로도 海底資源이 主要한 供給源이 될거라고 報告했다.

同 調査團은 美國의 海洋開發의 狀況을 調査함과 아울러 가장 有望한 海底資源이라 하는 深海底金屬鑛物試料를 大量 採取해서 開發研究의 參考로 하려고 7月1日부터 20日間에 걸쳐 美國內에서 調査한 것이다.

美國에서는 스크립스海洋研究所 등의 協力下에 로스엔젤레스南方 約千4百키로미터의 太平洋海域에서 4千미터의 海底로 부터 約 1噸의 深海底鑛物資源을 採取했다. 이것을 日本으로 가지고 와서 分析한 結果 採取資源中, 單강 約 20%, 鐵 約 11%外로 닉켈, 銅, 코발트 등의 金屬도 相當히 含有하고 있음이 判明했다. 그리고 이 調査結果에서 推定하여 鑛物資源은 世界中的의 全海域에 分布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今後의 계속적인 調査가 必要할 것이라한다.

美國에서는 政府가 海洋鑛物技術센터를 設置하고 開發研究를 계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民間企業의 研究投資도 盛行하여 美國의 J·L·메로博士에 의하면, 5年 後에는 採算의 으로 보아, 深海底鑛物資源의 採取가 可能하게 되며, 10年 後에는 닉켈, 20年 後에는 銅의 主要한 供給源이 될 것으로 展望된다.

